



동성애와 문화

- 제 4회: 동성애와 공연문화 -

CREDO MAGAZINE



지난 3회에서는 언론과 미디어, 특히 영화와 드라마 등 방송 콘텐츠에 나타난 동성애 문화의 실태를 조사해보았다. 우리는 흔히 동성애자들을 ‘성소수자’라고 부른다. 이는 ‘소수자’라는 의미를 부여하여 동성애자들이 우리 사회의 약자임을 강조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무대 위에서 성소수자들은 더 이상 소수가 아니다. ‘동성애 코드’는 음지와 같으며 성공하기 어렵다는 인식은 뮤지컬계에서는 예외이다. 뮤지컬 〈헤드워크〉, 〈쓰릴 미〉, 〈라카지〉, 〈프리실라〉, 연극 〈거미여인의 키스〉, 〈엠, 버터플라이〉 등 지금까지 국내에서 선보인 수많은 퀴어 공연물들이 흥행에 큰 성공을 거뒀고, 연극 〈프라이드〉의 경우 객석 점유율 90%, 뮤지컬 〈베어 더 뮤지컬〉은 재관람률 87%를 기록하는 등 지난 수년 간 동성애 코드가 국내 공연계를 점령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2014년 이후 퀴어 공연물들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는데, 연극계 남자배우들 사이에서는 동성과 입을 맞추거나 여장을 하지 않으면 작품을 못할 정도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왔고, 언론 기자들 역시 그들을 건너뛰면 인터뷰할 배우가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윤하정, yes24 공연 칼럼 2014).



●한경훈 교수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LA)에서 상업음악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KBS에서 다수 프로그램 음악감독을 역임하였다. 현재, 경희대학교 포스트모던음악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고, 방송음악가로도 활동 중이다.

과연 우리나라 공연계에 범람하는 ‘동성애 소재’는 어디까지 와있는가.. 또한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나아가 이 같은 공연계의 ‘동성애 문화’가 우리 사회에 가져다줄 영향과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번 4회 ‘동성애와 공연문화’를 통해 조명해보고자 한다.

❖. 국내 대표적 동성애 소재 공연 콘텐츠 현황

1. 뮤지컬

년도	제목 및 개요
2000	<렌트> 1996년 브로드웨이에서 공연을 시작으로 12년간 5123회의 공연. 동성애와 에이즈 등을 다룬 충격적인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뮤지컬계의 아카데미상인 토니상을 1996년 10개 부문 후보, 4개 부문 수상. 한국에서는 2000년 초연되었으며, 여러 차례 재연 및 흥행에 성공.
2002	<렌트> 재공연
2007	<쓰릴미(thrill me)> 2007년 초연, 10년 이상 재공연. ‘동성애’, ‘유괴’, ‘살인’ 이야기를 90분간 들려주는 뮤지컬. 2007년 한국 초연 이후, 흥행 뮤지컬의 대표작, 남성 2인극 열풍의 시작이 된 작품.
2008	<쓰릴미(thrill me)> 재공연 <헤드윅> 2008년 초연, 2019년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총 28회 재공연. 존재를 부정당하고 버려진 트랜스젠더 ‘헤드윅’의 이야기.
2009	<쓰릴미(thrill me)> 재공연 <헤드윅> 재공연 <자나, 돈트!(Zanna, Don't!)> 드라마데스크상 4개 부문에 오름. 국내에서는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 남자는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는 여자를 사랑하는 게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사회를 꿈꾸는 고교생들의 이야기. <스프링 어웨이크닝> 청소년기의 성관계 및 동성애적 소재가 담김.
2010	<쓰릴미(thrill me)> 재공연 <헤드윅> 재공연 <스프링 어웨이크닝> 재공연
2011	<렌트> 재공연 <쓰릴미(thrill me)> 재공연 <헤드윅> 재공연 <스프링 어웨이크닝> 재공연
2012	<쓰릴미(thrill me)> 재공연 <헤드윅> 재공연 <풍월주> 신라시대 남자 기생 사이의 사랑을 다룬 CJ E&M의 창작 뮤지컬. 국내 창작 초연작으로는 이례적으로 티켓 오픈 시점에 인터파크 뮤지컬 흥행 순위 1위에 오름. <라카지> 게이 커플이 자신들의 처지를 감추고 아들의 결혼을 돕는다는 프랑스 연극 ‘라카지오폴’을 원작으로 한 브로드웨이 뮤지컬. 국내에서는 LG아트센터에서 초연된 대형 뮤지컬. 게이바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만큼 여장남자(게이)들의 화려하고 현란한 무대 위 쇼가 특징.

2013	<p><쓰릴미(thrill me)> 재공연 <헤드윅> 재공연 <풍월주> 재공연 <헤이, 자나!(Hey, Zanna!)> 코엑스아티움 현대아트홀에서 공연. 2009년 뮤지컬 <자나, 돈트!>를 재탄생시킴. <번지 점프를 하다> 영화를 뮤지컬로. 가정이 있고 선생님인 게이 역할 남성과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p>
2014	<p><쓰릴미(thrill me)> 재공연 <헤드윅> 재공연 <풍월주> 재공연 <라카지> 재공연 <프리실라> 트랜스젠더, 게이로 구성된 세 명의 '드래그 퀸'(여장 남자) 댄서들의 여정을 그린 이야기. <킹키부츠> CJ E&M이 제작에 참여한 브로드웨이 뮤지컬로 여장 남자가 주요 배역으로 등장.</p>
2015	<p><쓰릴미(thrill me)> 재공연 <헤드윅> 재공연 <풍월주> 재공연 <라카지> 재공연 <킹키부츠> 재공연 <프라이드>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개방된 성적 가치관을 비교하며 그리는 내용. 평균 객석점유율 85%선에 이르는 흥행작. <베어 더 뮤지컬> 보수적인 가톨릭계 고등학교에서 벌어지는 청소년들의 동성애를 다룬 뮤지컬이다.</p>
2016	<p><쓰릴미(thrill me)> 재공연 <헤드윅> 재공연 <킹키부츠> 재공연 <베어 더 뮤지컬> 재공연</p>
2017	<p><쓰릴미(thrill me)> 재공연 <헤드윅> 재공연 <프라이드> 재공연 <베어 더 뮤지컬> 재공연</p>
2018	<p><헤드윅> 재공연 <풍월주> 재공연 <번지 점프를 하다> 재공연 <킹키부츠> 재공연 <베어 더 뮤지컬> 재공연</p>
2019	<p><풍월주> 재공연</p>

2. 연극

년도	제목 및 개요
2010	<p><이(爾)> 왕과 광대의 동성애 관계. 2000년 초연 당시 한국연극평론가협회 선정 베스트3, 한국연극협회 올해의베스트5 작품상, 연기상 등을 수상했고, 2001년 동아연극상 작품상, 연기상, 서울공연 예술제 희곡상 등을 휩쓸.</p> <p><뷰티풀 선데이> 동성과 이성을 넘은 인간의 사랑. 에이즈에 걸린 게이 소재. 국내에서는 2006년에 초연된 후 꾸준히 무대에 올려짐.</p>
2012	<p><게이 결혼식> 바람둥이 주인공이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 하는 거짓 결혼 생활을 다룸.</p> <p><M. Butterfly>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에서 공연된 연극. 주종 프랑스 외교관과 중국 경극 배우 사이의 20년에 걸친 동성애 관계를 그림. 개막 보름 전 이미 연극 부문 예매율 3위에 오른 연극.</p> <p><레슬링 시즌> 동성애 코드가 가미된 청소년 연극.</p>
2013	<p><레슬링 시즌> 재공연</p>
2014	<p><M. Butterfly> 재공연 <레슬링 시즌> 재공연 <수탉들의 싸움> 남성 동성애자들과 부모의 갈등을 다룬 이야기.</p> <p><프라이드> 뮤지컬 <프라이드>와 같은 내용의 연극 버전. 이듬해 두 번 재 공연을 했고, 두 시즌 모두 180분이라는 러닝타임과 17세 이상 관람가라는 연령제한에도 불구하고 객석점유율 90%를 기록하는 등 인기.</p> <p><BENT> 연극 '벤트'는 영국 국립극장이 선정한 20세기 최고의 연극 100편 중 하나. 지난 37년간 40여 개 국가에서 꾸준히 상연됨.</p>
2015	<p><M. Butterfly> 재공연 <프라이드> 재공연 <BENT> 재공연 <스탑 키스> 레즈비언의 사랑을 다룬 연극.</p>
2016	<p><까사발렌티나> 2014년 브로드웨이에서 초연되어 2014 토니어워드 3개 부문 노미네이트, 드라마 리그 어워드 2개 부문 노미네이트 그리고 드라마 데스크 어워드 남자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한 바 있는 화제의 연극.</p>

2017	<p><M. Butterfly> 재공연 <수탉들의 싸움> 재공연 <좋아하고 있어> 고등학생 밴드부인 두 여학생의 동성애를 다룬 연극. <투엑스라지 레오타드 안나수이 손거울> 고2 학생을 주인공으로 한 청소년극. 여성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또래집단으로부터 공격받는 남학생의 이야기.</p>
2018	<p><BENT> 재공연 <거미여인의 키스> 낭만적 동성애자 루이스 알베르토 몰리나와 반정부주의자 정치범 발렌틴 아레기 파스가 감옥 안에서 사상과 이념을 극복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이야기. <우리는 이 도시에 함께 도착했다> 페미니즘과 성평등을 담은 연극. <이반검열> 2000년대 중반 중고등학교에서 실제 벌어진 대대적인 동성애자 색출 작업을 소재로 한 연극. <네버 더 시너> 1920년대 미국 시카고에서 벌어진 유괴살인 사건 실화를 모티브로 하는 연극으로 동성애 캐릭터가 등장.</p>

❖ II. 국내에 동성애 소재 뮤지컬과 연극이 성황인 이유

1. 서구 예술인들의 영향

“To be a success as a Broadway composer, you must be Jewish or gay. I’m both.”

(“성공적인 브로드웨이 작곡가가 되기 위해서는, 유대인이거나 동성애자여야만 한다. 나는 둘 다 이다.”) 미국 역사상 최고의 작곡가 중 한 명이자 뮤지컬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의 작곡가 레너드 번스타인(Leonard Bernstein)이 남긴 유명한 말이다. 실제로 번스타인 자신도 게이였으며, 누구나 아

는 뮤지컬 <렌트>, <카바레>, <지붕위의 바이올린> 등도 게이 예술인들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줄거리도 ‘게이 코드’를 전면에 담고 있다. 사실 동성애와 공연 예술은 불가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오래전 기독교에 뿌리를 둔 서구 국가들은 동성애를 법으로 금지했다. 따라서 동성애자들은 자신의 성 정체성을 일상에서 드러낼 수 없었고, 자신들을 희극화시킨 비유적 이미지로 예술작품 속에 녹여낼 수밖에 없었다. 이런 배경 안에서 서구 뮤지컬과 연극 속에 자연스럽게 뿌리내린 ‘퀴어 코드’는 1960년대 말 서구를 휩쓴 민권운동을 계기삼아 점차 표현 수위를 높여가기 시작하였고, 1970년대 <코러스 라인>, 1980년대 <렌트>, <프로듀서스> 등 동성애자가 주연급으

로 비중이 높아진 공연예술로 대형화됨으로, 공연제작자와 배우, 관객들 모두 동성애 문화에 자연스럽게 흡수되도록 하는 인식변화와 전도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현재는 브로드웨이 공연계에 종사하는 남성의 다수가 게이이며, 관객 분포 역시 관광객 다음으로 동성애자가 많은 수를 차지할 정도다. 실제로 브로드웨이에는 에이즈에 감염된 동료들을 위해 'Broadway Cares/Equity Fights AIDS'라는 비영리 단체가 운영될 만큼 동성애에 대한 지지가 공연계 전체에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이처럼 뉴욕 브로드웨이는 동성애자들이 넘쳐나는 거대한 '게이 커뮤니티'가 된 것이다. 이것이 그 곳에서 퀴어 뮤지컬이 특히 많이 만들어지는 이유이며, 이는 영미권에서 흥행이 검증된 작품들을 수입하는 국내 공연 제작사의 생리와 맞물려 자연스럽게 국내 공연계 또한 퀴어 콘텐츠로 점령되어 가게 된 것이다.

2. '평범하지 않음'을 마케팅과 흥행코드로 수용

많은 문화평론가들은 주로 이성애자들인 국내 뮤지컬 제작자들이 유독 동성애자들을 포용하며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들을 무대에 올리는 이유가, 동성애 콘텐츠는 쇼비즈니스에서 상업적인 성공을 거둘 확률이 높다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동성애자들의 사회적 문제점을 진중하게 다루기보다는 '여장 남자' 등의 유쾌하고 화려한 퍼포먼스를 활용하는 방식을 택해, 흔해 빠

진 일상의 소재를 벗어나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차원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원종원 뮤지컬 평론가는 아시아경제 2015년 08월 21일자 인터뷰에서 "공연은 영상매체에 비해 윤리적 기준이 좀 더 개방적이다. 영상이 다루지 못하는 금기시되거나 익숙하지 않은 소재로 사람들에게 신선함과 재미를 준다."라고 말한 바 있다. 성적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사회적 움직임을 타고 뻗은 로맨스보다는 색다르고 더 자극적인 콘텐츠를 추구하는 관객의 성향과 맞물린 결과라는 것이다.

❖ III. 동성애 소재 공연문화가 주는 시사점

1. 숨겨놓은 '코드'에서 점차 노골적인 '코드'로 진화

문화평론가 조용신은 헤럴드경제의 칼럼을 통해 "게이 창작자들은 직접적인 동성애 표현 대신에 그들만이 알아볼 수 있는 이른바 '게이 코드'를 숨겨 놓는 것을 은근히 즐긴다. 게이 가수인 엘튼 존이 작곡한 <라이언 킹>의 주제가 '서클 오브 라이프'의 가사는 사실 성적 취향에 구애받지 않는 진정한 삶과 사랑의 진정성에 대해 말하려 했다. 과거의 예술가들은 '알면 보이고, 모르면 안 보이는 게이코드'를 사용했지만, 남장 여자 코드가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여지자 최근에는 커밍아웃한 게이기가 나오는 단계로 발전했으며, 앞으로는 게

이들 사이의 치정 관계를 다루는 수준으로 나아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뮤지컬 〈쓰릴 미〉의 경우, 2007년 초연 당시에는 남성간의 키스신이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재공연 되는 지금은 남성간의 키스신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장면이 되었다. 흥행에 성공한 뮤지컬 〈라카지〉의 이지나 연출 또한 “〈라카지는〉 1980년 대학로에서 정식이 아닌 〈미스터 레이디〉라는 제목으로 공연됐던 작품”이라며 “그간 올리지 못하다가 최근 우리사회에 동성애가 양지쪽으로 나오게 되면서 빛을 보게 됐다”고 전하면서 “퀴어 코드는 더 이상 마이너의 문화가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중앙일보 2012.07.11.).

공연계의 ‘퀴어 콘텐츠’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2. 대기업, 유명인 등을 내세운 동성애 문화의 보편화, 대중화 추구

대기업이 제작하고 유명인이 출연하는 공연물들은 흥행은 물론이고 대중들에게 사회적 공신력을 높이는 역할까지 하게 된다. 뮤지컬계 최고 권위의 토니상 작품상을 3차례 수상한 유일한 뮤지컬인 ‘라 카지 오 폴(La Cage Aux Folles)’의 국내 버전인 〈라카지〉는 전형적인 게이 소재 뮤지컬로 한국을 대표하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CJ E&M이 제작 주관한 대형 뮤지컬이다. CJ E&M은 여장남자가 주요 배역으로 등장하는 〈킹키 부츠(Kinky

Boots)〉 제작에도 참여하는 등 동성애 콘텐츠 대중화 전면에 섰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의 동성애를 담은 〈헤이, 자나!〉 역시 세종문화회관, 인터파크, 신시컴퍼니 등 대형 회사들이 주관, 제작하여 대중적 공신력과 흥행을 모두 잡는데 성공했다.

뮤지컬 〈프리실라〉는 트랜스젠더 역에 조স্থা, 게이 역에 조권이 출연하는 등 대중에게 잘 알려진 아티스트들이 섭외되어 대중적으로 주목을 받았고, 2006년에 초연된 후 꾸준히 무대에 올려진 연극 〈뷰티풀 선데이〉는 꽃미남 텔런트 정일우가 에이즈에 걸린 게이 청년 역으로 무대에 올라 눈길을 끌었다. 뮤지컬 〈헤드윅〉의 2014년 공연에서는 〈지킬앤하이드〉로 유명한 영화배우 겸 뮤지컬배우 조승우가 트랜스젠더 록 가수 역을 맡았다. 연기에 참여하는 배우들은 대부분 동성애에 열린 시각을 갖게 된다. 흥행작 〈라카지〉에서 극중 게이역을 맡은 평범한 이성애자인 정성화와 김다현 배우는 작품 홍보를 위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역을 제안 받았을 때 거절부터 했어요. 그러나 다름을 인정하자는 것이 주제인 것 같아요. 게이들의 이야기지만 우리 모두의 이야기, 가족에 대한 이야기이거든요. 일반인이든 게이이든, 남자든 여자든 똑같다는 것이 교훈 같아요. 무대에 서면서 많은 것을 느끼며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듯 퀴어 공연물들은 배우와 관객 모두에게 동성애 문화를 자연스럽게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커다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3. 가부장적 사회에 대한 여성들의 해방의 도구

한국의 동성애 공연들의 특징 중 하나는 관객 층이 여성이 더 많다는 것이다. 한국의 게이 문화는 동성애자보다는 여성 관객을 노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게이 코드는 꽃미남에게만 열광하는 일부 20, 30대 여성 관객을 주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 수단으로 변질될 위험성도 있다고 지적한다. 동성애 관계의 두 남자가 출연하는 뮤지컬 <쓰릴 미>의 공연 막판 매진 행진도 객석의 90% 이상을 차지했던 여성 관객 덕분이었다. 남성 배우끼리의 키스 장면은 여성 관객들의 격한 호응으로 인해 줄곧 비명으로 가득찬다고 한다. 현대 사회에서의 여성의 경제적 지위가 상승함에 따라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 사회 환경을 거부하는 성향이 늘고 있고, ‘게이’ 남성이 주는 부드럽고 섬세한(혹은 여성이 되고 싶은) 그런 이미지가 마치 더 이상 남성에게 지배당할 필요가 없는 동일한 존재, 편안한 친구나 동생 같은 존재로 여기도록 해주어 남성애에 대한 새로운 판타지를 심어주고 이를 통해 일종의 해소작용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다.

4.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소재들로 인해 성 개념의 혼란 우려

2003년 브로드웨이닷컴 관객 어워드를 통해 관객들이 가장 좋아하는 오프 브로드웨이 뮤지컬로 선정된 <자나, 돈트>의 경우, 동성 간의 사랑이 일반적으로 여겨지는 황당한 상상이 현실이 된 고등학교 ‘하트빌’에서 일어나는 고교생들의 연애담으로 가득하다. 고등

학교를 배경으로 남-남, 여-여 커플의 사랑과 해프닝을 그려 동성 간의 사랑이 일반적이고, 이성간의 사랑이 비정상적이라는 역발상으로 세상에 대한 성개념을 뒤집는다. 국내에서도 2009년 세종문화회관 세종M씨어터에서 공연되어 큰 흥행을 이뤘다. 2015년 초연되어 해마다 재공연이 이루어진 뮤지컬 <베어 더 뮤지컬> 역시 보수적인 가톨릭계 고등학교에서 벌어지는 청소년들의 동성애를 다룬 뮤지컬이다. 동성애를 전면에 내세운 이 작품은 고등학생 게이 커플의 동성애뿐만 아니라 혼전임신까지 다뤄 청소년의 성적인 성장통을 극단적으로 묘사하는 등 청소년에게 파장을 끼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몇 차례 재공연된 연극 <레슬링 시즌> 역시 동성애 코드가 가미된 청소년 연극으로 국립극단 무대에 올랐다. 또한, 2017년 연극 <좋아하고 있어>도 청소년 동성애를 다룬 연극이다. 혼자 자취하는 고2 여학생과 밴드 선배인 고3 여학생의 동성애를 다뤘다. 청소년극 <투엑스라지 레오타드 안나수이 손거울> 또한 여성성을 가진 고2 남학생을 주인공으로 한다. 뿐만 아니다. 대규모 블록버스터 뮤지컬 <라카지>는 만 7세 이상 관람가로서, 많은 초등학교 관람객이 부모와 함께 관람하였다. 이들 초등학교생들에게는 여장남자들의 독특한 분장과 의상, 게이바에서 ‘드랙퀸’이라 칭해지는 여장남자(게이)들의 화려한 춤과 현란한 퍼포먼스가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 분명 단순한 볼거리를 뛰어넘어 정체성에 대한 개념을 사라지게 하고 다른 정체성에 대해 자신을 쉽게 오픈하게

되는 영향도 끼칠 수 있지 않을까..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듯, 우리 사회는 ‘동성애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단지 다른 것이며 이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일방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고, 공연 예술계 역시 이 같은 일에 아무런 이견 없이 동성애 콘텐츠 제작에 앞장을 서고 있다. 솔직히 말하자면, 사실상 ‘동성애에 대한 경계적인 시선’을 가진 어느 누구라도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동성애를 경계하는 것’ 자체가 매우 후진적인 사고이며 당장 허물어져야 하는 잘못된 인식이라는 분위기가 자리 잡았다. 동성애자들은 이 사회가 자신들을 혐오하고 있다고 차별 금지를 호소하고 있지만, 공연 예술계의 실상은 정반대다. 그들은 끊임없는 응원과 박수를 받고 있고, 혐오적 시선은 오히려 ‘동성애 콘텐츠를 받기 싫은 모든 사람’의 몫이다. 이번 4회에서 살펴본 듯이 동성애 공연물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우리 문화계 전반에 걸쳐 흥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공연문화가 어린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지 충분한 담론을 거치지 않았다. 다양한 볼거리, 사회적 편견해소라는 미명으로만 덮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자라나는 청소년과 미래사회에 끼칠 수 있는 변화들에 대해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우리 문화 콘텐츠들의 현주소를 점검하여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희망해 본다.

